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석 문 주*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특성, 질적연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연구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여, 이를 어떻게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음악교육연구, 질적연구, 음악교육

차 례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I.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특성
 - 1.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필요성
 - 2.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특성
- III.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방법과 절차
 - 1.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
 - 2. 질적연구의 방법과 자료수집
 - 3. 질적자료의 분석
- IV.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를 위한 제언
- V. 결 론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990년 이후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가 교육연구에서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들어 학술대회, 논문, 저서, 연구보고서, 대학원에서의 질적연구 수업개설 등을 보더라도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음악교육에서도 질적연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며, 연구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두개의 음악교육학회에서 비롯되었다. 1994년과 1996년에 일리노이대학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음악교육학회(Qualitative Methodologies in Music Research Education Conference I & II)가 개최되었는데, 50개의 논문, 전문가 토론(panel discussion), 포스터 세션, 그 외 질적연구와 관련된 연구자료가 발표되었다. 이 발표자료들은 CRME((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94, 1997년)에 게재되었으며, 많은 음악교육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Boardman, Grashel & Zimmerman, 1994, 1995; Boardman & Grashel, 1996, 1997).

야브로는(Yabrough, 1984, 1996) 미국 저널에 게재된 논문내용분석 연구에서 1984년 연구에는(1953-1983년 연구내용) 질적연구를 연구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1996년 연구에서는(1984년-1995년 연구내용) 하나의 연구방법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석문주는(2005) 미국의 CRME 연구논문을 분석에서 질적연구논문이 1994년부터 2004까지 총 57편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며, 음악교육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질적연구에 관한 논문은 오랜 기간을 소요되어야 하며, 연구방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박사논문에서 많은 적용을 하고 있다. 칸토리스키와 스테만(Kantorski & Stegman, 2006)은 1998년-2002년 사이의 미국 음악교육관련 박사논문에서 질적연구방법과 주제를 사용한 논문을 분석하였다. 총 675개의 논문 중 148편(21. 93%)이 질적연구와 관련되었으며, 매년 25개에서 31개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질적연구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사례연구

(case study, 39.10%), 인류학적 연구(ethnography, 18.59%), 참여자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11.54%), 집단면담(focus group)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13.45%), 음악교육 프로그램(학문적, 지역적, 종교적 프로그램, 8.40%), 교사교육(교생실습포함, 7.56%), 교육과정 통합(6.72%), 수업전략(6.72%) 순으로 나타났다.

플린더스와 리처드슨은(Flinders and Richardson, 2002) ‘과거와 비교하여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자의 수와 그 위상은 놀랄 만큼 올라갔으며, 교육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한 동향이 되었다(p.1159)’ 고 하였다. 최근 들어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연구의 성과 또한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논문이 최근에 이르러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음악교육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방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조용환(1999), 이용숙(1996, 1998), 김영천(1998), 길병희(2001)가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논의와 주장을 확산되며, 질적연구의 다양한 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심도있게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질적연구들은 교육학의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장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이고 유용성있는 과정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교육에 관련된 질적 연구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음악교육학에서도 그 관심이 생겨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논문과 훈련단계의 대학원생들이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그 적용을 볼 수 있다(석문주, 1998; 채경순, 2004; 이수진, 2005; 이지애, 2005)¹⁾.

지난 10여년 넘게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쳐 왔다. 그동안 양적 연구형태로 진행되어 온 많은 연구자들의 결과물은 음악교육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최근 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 음악교육연구에서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실험을 하거나 문헌을 위주로 연구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1) 이 연구들이 질적연구의 논리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흡한 연구를 참고로 제시함을 밝힌다.

위하여 새로운 연구접근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물론 질적 연구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질적연구의 본질을 흐려놓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적용이 음악교육에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부터 얻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은 음악교육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특성, 질적연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음악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적연구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여, 어떻게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음악교육의 중요한 현상과 본질들을 다양한 연구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조명하면서 질적연구의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음악교육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특성

1.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필요성

어느 학문분야에든지 그 분야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탄탄한 지식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지식체계는 연구라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질의 연구는 그 학문분야의 존재 가치를 강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타학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는 일련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각 분야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연구는 객관주의에 근거하여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려고 하였던 양적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나

그 의미는 우리 인간에 의하여 부여되고 구성된다는(석문주, 2002) 구성주의 교육에 철학적 기초를 둔 질적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음악교육학의 연구방식 역시 그동안 객관적 사실과 실재를 중시해왔던 객관주의에 치중되어왔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로서 검증되어온 연구결과만으로 음악교육의 다양한 연구대상과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음악수업에서 새로운 음악창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가 학생들의 성취점수의 차이를 통하여 창작프로그램의 특징과 장점을 규명하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학생 개인차에 따른 음악적 aptitude, 학생의 창작학습 과정, 학습과정에서의 동료학생과의 관계, 새로운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경험을 밝혀 줌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의 상이한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질적연구이며, 이것이 바로 질적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음악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이 학교수업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얼마나,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수업에서 음악적 내용과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지’를 알아야 하는 지가 필요한데, 바로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서 질적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질적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특정한 사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1998). 위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일차적 관심은 새로운 창작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적용가능성일 것이다. 연구자는 특정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하여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는 왜 학생들의 창작능력이 발전 혹은 발전되지 않았는가?’, ‘왜 이 학교에서는 창작활동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보이지 않는가?’, ‘모둠 활동에서 왜 한, 두 명만 열심히 참여하는가? 아니면 ‘이 수업에서 창작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바로 질적연구는 양적 연구를 통하여 알아낼 수 없는 다

양한 현장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차이와 다양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경험이나 내면세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언어, 기호, 그림, 사진, 음악-으로 표현한다. 소설가는 소설로서, 화가는 그림으로서,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각각의 고유한 표현방식(forms of representation, Eisner)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고 한다(Eisner, 1994). 우리는 음악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인가 특별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미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언어나 기호를 통하여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과는 다르게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 음악'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다르며, 특히 학생의 음악적 경험은 개개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된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은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다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각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연구활동이다(김영천, 1998). 음악교육연구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반드시 음악교육현상에 대한 관찰과 기술이 중요한 연구활동으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질적연구는 교육현상의 미시적인 과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들의 미묘한 변화와 특징을 포착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 제시한 창작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할 때 연구자는 먼저 학교의 창작학습 현상에 대하여 관찰하고 기술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세부적인 묘사와 이해를 통하여 '특정 현장에 새롭게 적용된 프로그램의 결과가 그 현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교사가 어떻게 그 내용을 해석하여 새롭게 구성하여 가르치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기술은 창작프로그램이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적 문제점을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음악수업에서 실제적인 음악적 경험의 맥락, 의미, 흐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질적연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이다.

2.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의 특성

질적연구는 단순화와 한계설정을 최소화하고 현상의 복잡성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한다(조용환, 1999). 그리하여 질적연구자는 ‘연구의 맥락을 인위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현상이 전개되는 자연적인 맥락 또는 일상적인 맥락에 자신이 참여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조용환, 1990). 조용기(2000)는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객관성 확보를 위한 ‘거리 유지’를 지향하기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연구 상황에서의 ‘연루’를 지향한다(p.11).’고 한다. 그는 질적연구는 현장에서의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연구대상의 의식세계에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한다.

링컨과 구바(1985)는 양적연구의 목적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 반하여 질적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연구자가 구성해 내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 참여적 관점이 중시되고 연구자의 해석에 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어떤 현상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계속 집중하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상호관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플린더스와 리처드슨은(2002) 질적연구는 1) 현장에 기초하고, 2) 관찰에 의한 자료수집과 이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3) 해석적이고, 4)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에 대한 분석적 전략이 필요하고, 5) 자발적인 참여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브레즐러(Bresler, 1992)는 질적연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총체적(holistic)이다. 음악현장은 매우 다양한 상황을 제공한다. 학생, 교사, 수업, 교육과정 모두가 연구상황이 될 수 있으며, 질적연구에서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가를 보고 그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수업의 상황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자의 진술은 녹음되고, 진술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

므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장에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경험주의적(empirical)이다. 질적연구는 진짜 사람과 진짜 상황에서의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연구는 음악적 상황(context)을 있는 그대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상태에서 관찰을 강조하고, 그 상황에서의 참여자들의 시각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descriptive)이다. 질적연구는 숫자자료보다는 구술자료에 의존하는 연구이다(Phelps, 2005).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숫자보다는 말이나 그래프에서 얻게 되며, 연구결과는 예를 들거나 실증적인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기술하게 되어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된다.

넷째, 해석적(interpretive)이다. 연구자들은 정확히 따라야 하는 규정적인 분석의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직관에 의존하게 분석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작업이 잘 된 것이지, 그리고 자신의 도출한 연구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평가하는데, 삼각검증방법(triangulation)²⁾을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다섯째, 감정이입적(emphatic)이다. 현장을 참여자관점에서 관찰하게 되어, 그 상황을 매우 근접하게 이해한다. 그 상황은 에믹의 관점(참여자)과 에틱의 관점(연구자, 글 쓰는 사람)에서³⁾ 해석을 하게 된다.

여섯째, 어떤 연구자들은 아래로부터 위로의(bottom-up)의 작업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질적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중에 어떤 이슈나 관점이 만들어지게 되며, 어떤 상황을 관찰하면서 어떤 관점이 만들어지게 된다. 연구중에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그 수준에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고, 어떤 자료를 계속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일곱째, 연구가 잘 되었을 때 현장 관찰과 즉각적인 해석이 높은 가치가

2) 연구의 타당성작업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상을 연구하는 의미한다.

3) 에믹(emic)은 인류학에서 문화기술적 연구에 임하는 인류학자가 한 문화를 현지인의 토속적 개념과 논리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그와 달리 '에틱(etic)은 비교문화적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인류학자가 학술적인 맥락에서 외부적 기준, 용어, 도구 등을 활용하여 그 문화를 연구하는 접근법을 말한다(조용환, 1999).

있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와 방법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연구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Ⅲ.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를 위한 방법과 절차

질적연구자들은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실행하는데, 마치 기술자의 공구상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알아가듯이 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나 도구를 선택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음악교육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질적연구를 하는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질적연구에 활용되는 사례연구(case study), 참여자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면담(interview), 문화기술지의(ethnography)특성을 알아보고, 음악교육에서의 적용한 실례를 제시한다.⁴⁾

1. 연구도구로서의 연구자.

질적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달리 중요한 연구도구가 연구자이다(Phelps etc, 2005).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다 ‘사람’이다. 즉,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다른 누구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 취급된다(조용기, 2001). 질적접근에서는 ‘연구대상(research subject)’이라는 용어보다는 ‘제보자(informant)’, ‘참여자(participant)’, ‘현지인(the native)’, ‘또는 그 사람들(the people)’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육에서 활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을 일부만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 음악교육계에서 질적연구가 이론적 연구나 양적연구에 비해서 연구물이 많지 않고, 질적연구의 학문적 배경이 적은 연구자가 모든 연구방법을 논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에 음악교육에 활용되는 범위를 좁혀 논의함을 밝힌다. 또한 각 방법의 구체적인 개발과정은 지면의 한계가 있어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양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외부세계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멀리 있으면서 연구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세계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의 세계가 더 중시되고, 연구자는 참여자의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또한 질적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의미있는 현상으로 취급한다. 참여자가 비록 남과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고,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질적연구의 방법

질적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갖게 된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 질적연구는 첫째, 주제선정을 위한 연구사고 단계, 둘째, 연구계획 단계(연구방법 선정단계), 셋째, 연구실행 단계, 넷째, 연구자료수집 단계, 다섯째, 연구분석 단계, 여섯째, 글쓰기 단계로 일반적인 연구절차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Phelps, 2005).

1) 연구사고 단계

이 단계는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긴 시간의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왜 이 특정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한다. 주제는 연구자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거나, 창작활동을 하는 교수방법과 학생들의 음악적 창작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문헌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이때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발견하는 것도 질적연구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가 없거나, 편협하거나, 또는 이론이 틀린다는 예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음

악교육에서 질적연구를 예로 든다면, ‘음악통합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 성취와 음악교사의 인식’(Shuck, 2005), 초등학교에서의 ‘창작하기 위한 학습과 창작을 통한 학습’(Perconti, 1996), ‘고등학교 합주앙상블에서 음악적 경험의 사회적 구성’(Berg, 1997), ‘음악 테크노로지랩에서 교수-학습 협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생태학 관점’(Ruthmann, 2006), ‘음악가-교사로서 정체성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음악교사의 삶’(Bernard, 2004), ‘미국 음악교육 실태에 대한 음악교육행정가의 질적인 분석과 통찰: 델파이 분석과 통합’(Fritz, 1999), ‘음악교육에서의 멘토링: 교생, 담당교사, 교생지도교수의 협력관계’(Liebhaber, 2003) 등이 있다.

2. 연구계획단계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환경과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1) 연구환경(setting) 선정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환경을 미리 확인하고, 참여자들의 특성과 그들에게로의 접근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수행되어져야 하는 연구에 과중한 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연구자는 연구가능한 환경과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도덕 윤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숙(Shuck, 2005)은 ‘음악통합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 성취와 음악교사의 인식’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환경으로 공립학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는 대학행정가, 음악수석교사, 음악행정부 등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교로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예술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교사들이 수업에 예술을 통합하는 학교이며, 통합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를 증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오는 학교를 연구환경으로 선택한 것이다.

2) 연구방법

질적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된다. 특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방법(triangulation)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가장 잘 제시되고 있는 한 방법에 중점을 맞추어 예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사례연구(case study)

스테이크(Stake, 1994)는 사례연구는 ‘어떠한 세계를(world)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례를(case)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Flinders and Richardson, 2002, 246p.에서 재인용). 즉, 어떤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변인들의 상호역할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참여자의 특성, 연구상황, 관여된 사람들의 특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특정사례에 대한 심층적 기술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어도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잘못 알려져 있는 사례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근접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연구 1) 초등학교에서의 예술교육(The arts in elementary school: Custon and Cherishing, R. Stake, L. Bresler, & L. Mabry, 1991)

본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프로그램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성주의적 사례연구’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는 6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 학교에서 예술의 미학적 관점에서 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교사들이 다른 과목과 예술활동을 통합하여 가르치면서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장려하고 있는가?, 셋째, 중요한 예술가와 작품을 다룰 때 대중예술과 다문화예술을 포함시키고 있는가?, 넷째,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다섯째, 학문중심예술교육(Discipline-based arts education)⁵⁾이나 현재의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는가?, 여섯째, 예술 교육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갖출 수 있는가?.

이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질문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관찰을 하게 되었다. 기대하였던 만큼 좋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학교에서 예술은 중요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예술이 주류를 이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계속 음악과 예술과목을 포함시켜 가르쳐야 하며, 특히, 전통적이고 좋은 질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좋은 음악회와 전시회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2) 음악통합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적 성취와 음악교사의 인식(Music integration: Educators' perceptions of implementation and student achievement in public school elementary education, C. Schuck, 2005)

본 연구는 플로리다 주 초등학교에서 음악통합에 대한 수준과 빈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학교에서 음악통합교육과정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무엇이며, 이것이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음악을 통합시키는 정도와 빈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에서 효율적인 음악통합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훈련, 계획, 자료, 지원, 앎은 어떠한가, 그 이외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세째 음악통합교육과정이 음악에서의 학문적 성취와 다른 과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었다.

연구자는 14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조사,

5) 미술 이해에 바탕을 둔 DBAE는 '이론'과 '실기'로 이원화된 종전의 미술 교육 체계에서 탈피하여 '미술사', '미학', '미술 비평', '미술 실기 제작'이라는 네 가지 지식 구조의 균형 잡힌 커리큘럼 속에서 계획된 학습 훈련을 통해 교육되는 것을 말한다(Retrieved(October 20, 2006,fromhttp://classroom.kice.re.kr/gen_content01/10/9/2/1/1/1453/))

수업관찰, 수업계획서, 면담, 학생의 작업문서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연구자의 이해와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검증의 방식으로 연구를 실천하며, 집중적이고 면밀한 관찰을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전이성이 강하도록 하였다.

2개의 음악통합수업 관찰과 교수안은 위긴스와 위긴스의(Wiggins & Wiggins, 1997)⁶⁾ 음악통합 5단계 평가기준(criteria)과 수업관찰 및 교수안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조사지 내용은 1) 교육자들 간의 협동, 2) 음악통합과 관련한 장점 혹은 단점, 3) 음악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4) 학교에서 시행되는 음악통합에 대한 수준, 단계, 빈도에 대한 평가이었다. 학생은 결과물로 포트폴리오, 시험결과, 음악연주 녹음, 저널을 제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주제(theme)를 분류하며 이에 대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코드화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표, 그래프, 구술(narratives), 전사물로(transcription)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음악통합은 다른 과목에서 어떤 정보를 외우거나(teaching tool connection), 음악 '그 자체'에 대하여 잘 알거나(topic connection), 다른 과목과 공통된 개념이 있거나(conceptual connection), 다른 과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process connection) 가장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행정가들에게 '앎'과 '훈련'이 학교에서 음악통합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고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통합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음악통합이 초등학교에 중요한 학업성취에 성공적인 변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와 실천을 통한 음악교육통합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질적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참여관찰은 현장관찰과 자료기

- 6) 음악통합을 분석하기 위한 5단계로서 teaching-tool connection(교수도구로서 관련), topic connection(어떤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과목에 도움이 되는 토픽 관련), thematic/content connection(두개 이상의 과목에서의 주제/내용 관련), conceptual connection(개념관련), process connection(과정관련)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수업관찰에서 활용하였다.

록을 위하여 연구대상에 있는 참여자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활동을 의미한다 (Fetterman, 1998, 김영천, p.81에서 재인용). 연구자가 특정현장에 장기간 참여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활동이다. 양적연구에서도 관찰방법을 활용하는데 양적인 접근에서는 통제된 상황 하에서의 구조화된 관찰이 중심이 되는 반면, 질적인 접근에서는 자연적인 관찰기법 특히 참여관찰에 초점을 둔다. 자료수집방법은 문화기술지연구(ethnography)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한 현장노트를 중심으로 스케치, 사진, 오디오, 비디오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다.

참여관찰은 연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의 환경 및 사람과 생활에 친숙해지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교실처럼 외부인의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을 연구할 때 학교와 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므로 연구자는 현장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참여관찰은 현장교사의 행위당사자 연구(action research)⁷⁾나 수업개선을 위한 교실연구와 관련하여 교육학자나 정책가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장중심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학교에서 수업과정과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됨으로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관찰의 폭을 좁히며 대신 깊이를 더해야 한다. 즉 연구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양적 연구의 경우 자료수집과 분석이 단선적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질적연구에서는 반복적, 순환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

7) action research는 우리나라에서 '실행연구'(김영천, 1998)나 '현장연구'(정택희, 1998) 이외에도 '현장개선연구'(최의창, 1998)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현장연구나 현장개선연구 등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액션리서치가 교사의 수업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육종사자 일반이나 그밖의 의학, 경영학 등의 현장활동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기위해서 '행위당사자' 연구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길병희 외, 2001).

(연구 3)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석문주, 2002)

본 연구는 다중지능이론을 기초로 한 TfU(이해를 위한 교수, Teaching for Understanding)를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중지능이론의 학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중지능을 적용한 음악수업의 받은 학생의 음악적 이해, 음악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수업에서의 학생의 학습문화와 수업적용을 통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연구원 2명이 참여 관찰하였다. 관찰자의 역할 면에서는 관찰자가 외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관적 관찰’을 채택하였고, 관찰형식은 ‘공개적 관찰’이었다. 관찰의 초점은 실제 음악창작수업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근본적이고 대략적인 질문을 토대로 관찰에 임했다. 수업관찰은 수업이 전개되는 전반적인 활동과정을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반응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수업 관찰 시에는 학생들의 음악과제의 실행, 교사와 학생·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 학생의 반응, 교사의 수업진행, 협동학습에서의 학생들의 논의 및 조정, 전체 수업에서의 토의 등 전반적인 관찰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음악수업 개발 및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음악적 이해 및 변화, 문제해결능력, 음악에 대한 태도, 협동학습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수업참여, 수업반성, 수업문화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생의 음악적 이해력, 음악적 기능, 음악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수업과정동안 문제해결 능력과 인지적인 전략의 발전을 보였으며, 협동학습을 통한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전하였다. 학생 자신의 신뢰감과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며 수업의 주체 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사는 새로운 수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 수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연구 4) ‘고등학교 합주앙상블에서 음악적 경험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Music Experiences in Two High School Chamber Music Ensembles, 1997, M. H. Berg)’

본 연구는 두 고등학교 합주수업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social interaction) 어떻게 음악적 해석(musical interpretation)에 이르게 되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두 학교의 합주수업에서 어떠한 음악적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나타나는가? 둘째, 학생간의 관계와 사회적 구조가 학생의 음악적 앎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고츠키의 ZPD(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근접발달 영역)⁸⁾를 통하여 도와주는 지 혹은 아닌 지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5개월 동안 두개 현악앙상블의 13번 리허설, 16번 코칭 레슨, 6번 연주를 관찰하였다. 데이터는 비디오/오디오 테이프를 수집하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록하였다. 합주 멤버와 코치와의 면담, 리허설 비디오테이프 검토자료, 연구자의 현장 노트, 그 외의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첫째, 리허설에서 음악적 토픽, 둘째, 각 리허설에서 연습하는 음악시간과 특성, 셋째 참여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빈도, 넷째 리허설에서 학생행동의 연계성 등에 대한 네 개의 음악적 생각과 행동 패턴이 발견하였다.

그는 두개 그룹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다. 합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른 동료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였다. 두개 그룹 모두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하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구조의 적용과 여러 가지 리허설 전략과 음악적 아이디어의 활용으

8) 근접발달영역은 비고츠키가 주장한 이론으로 실제적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 간의 차이를 말한다(권덕원 외, 2005). 전자는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후자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교사나 더 유능한 동료학생의 도움을 받으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을 말한다.

로 학습을 증진시켰다. 상이한 점은 두개 그룹에서 각 학생의 역할은 다르게 하였으며, 그룹별로 독특한 리허설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은 음악적 이해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방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협동학습 적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3) 면담(Interview)

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방법이다.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활세계, 의식, 주관적 경험, 느낌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자의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김영천, 1998).

양적연구의 구조적인 면담(structured-interview) 하는 반면에, 질적연구의 면담은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면담자-피면담자의 관계와 유동적인 연구상황을 고려하여 상호협력하는 비구조적 면담(unstructured-interview)의 성격을 띤다. 면담에서 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한다.

(연구 5) 미국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음악교육행정가의 질적인 분석과 통찰(A qualitative Delphi analysis of the insights of music education trained school administrators on the current state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B. P. Fritz. 1999)

음악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은 행정가를 대상으로 공립학교에서 음악교육 실태를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인터뷰하였다. 연구문제는 음악교육에 대한 통찰, 인지, 그리고 실천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음악교육의 주제를 정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질적연구를 적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책연구모형을 발전시켰다.

행정가들에게 전체 교육과정과 음악교육과의 관계, 교사교육의 발전, 모든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에 대한 주제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한 결과 첫째, 주요(core) 학문적 영역에 음악을 통합시키도록 교사들이 노력하여야 하며, 둘

째 예비교사교육과 학교교육이 연계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셋째, 모든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쳐야 하며, 넷째, 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조사에서 학교에서 음악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가들이 중요한 통찰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가들은 학교에서의 다른 학습에 대한 음악교육의 영향에 대한 이해 부족, 예술과목에 대한 시수 부족과 부적절한 정책,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족 등이 음악교육이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6) 음악가-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음악교사의 삶
(Striking a chord: Elementary general music teacher's expressions of their identities as musician-teachers, R. J. Bernard, 2004)

본 연구는 음악가이면서 교사로서의 삶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대상은 음악가이면서 교사경험을 가진 6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하였는데, 나이, 성, 교사경험, 학생의 학년(고학년/저학년), 학교유형(사립/공립, 도시/시골), 음악경험연도, 전공악기(악기 혹은 성악, 작곡 혹은 연주)등을 고려하여 학교행정가에서 추천을 받아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음악가이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하였다. 첫 면담에서는 비구조적이면서 개방적 질문형태로 하였는데, 어떻게 음악교육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음악가가 되었는지,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음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는 연구자가 첫 번째 면담 내용에 대하여 전사한 것을 보고 피드백을 받았다. 면담내용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첫 번째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싶은 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 면담에서도 첫 번째 면담 내용에 대하여 다시 면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심층적인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3개월간의 수업관찰과 수업관찰 후에 면담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업의 후의 면담내용은 자신과 수업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수업에서 어떤 상황(수업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어떤 부분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학교 밖에서 음악가로서 하는 활동을 오늘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어떻게 그 활동과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연구결과 음악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현장에서 음악교육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문화기술지(ethnography)

문화인류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문화기술지는 한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의 기록이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서의 한 집단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관찰을 통하여 얻게 된 그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과 해석에 기반을 둔다(조용환, 1999). 참여관찰이 현장노트와 면담자료를 모아서 자세하게 특별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문화기술지는 참여자의 행동, 신념, 지식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7) 아리리스 전통음악에서의 부동과 변화에 대한 인식(Perceptions of change and stability in the transmission of Irish tractional music: An examination of the music teacher's role. K. Veblen, 1991)

본 연구는 아이리스 전통음악을 전승하는 과정과 음악교사의 관점에서 전통음악의 부동성과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악교사의 역할, 음악적 네트워크(정보, 조직, 연락), 아이리시 음악의 전승에 대한 구조, 아이리스 음악 전승에 대한 참여자의 판단과 교사의 인식에 관한 것을 연구하였다.

9개월 동안 두 명의 기악교사 수업을 관찰하고 면담하였다. 또한 13명의 음악교사, 26명의 관련기관의 종사자와 면담을 하였다. 데이터는 면담자료, 현장노트, 관찰기록,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 사진, 녹화자료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연구결과, 교사는 음악을 전승하고 장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은 1:1의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그룹으로 배우고 있으며, 미디어와 테크

놀리지가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많은 아이리스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배우고 있으며, 높은 음악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에 매우 흥미와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3. 질적자료의 분석

연구를 통하여 질적자료가 획득되면 연구자는 자료 관리와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설명하고 기술하며, 점차적으로 자료를 감소시켜나가면서 분류화하고 범주화하면서 주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질적연구 분석은 1)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선후관계가 아닌 순환관계를 이루며, 2) 명확하고 표준적인 분석 방법이 따로 없으며, 3) 질적 연구자 특유의 정서적, 창의적, 직관적, 개방적 분석 능력 등이 요구된다(김영천, 1998). 엄밀히 말하면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같이 필요한 자료를 다 수집한 다음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면 그 수준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계속하는 것과 같이 분석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질적연구에서는 분석과 자료수입이 상호보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김영천, 1998).

음악교육 질적연구에 대한 자료는 언어적인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자료가 많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된다. 질적 방법에 의하여 관찰한 내용이 단순히 텍스트일 수도 있지만, 음악교육과 관련된 많은 양의 자료는 음악에 관한 것이다. 음악 악곡, 음악 연주, 음악창작품, 교사의 음악적 시범 등 음악을 ‘실행(實行)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석문주(2002) 연구의⁹⁾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데이터수집방법과 분석 초점과(예1) 수업관찰과 수업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예 2) 제시한다.

9) 본 연구는 가드너의 ‘이해를 위한 교수’(TfU, teaching for understanding)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생성적 주제’, ‘이해를 위한 목적’, ‘이해를 위한 수행’, ‘계속적인 평가’를 구성요소로 한다. 따라서 이 요소들의 구성을 분석하였다.

(예 1) 데이터 수집방법과 분석 초점

연구문제	데이터	분석 초점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받은 학생의 음악적 이해는 어떠한가?	참여관찰 수업안 수업비디오 학생 포트폴리오	음악적 이해에 대한 분석적 데이터와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적인 구술과 인용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받은 학생의 음악적 변화는 어떠한가?	참여관찰 수업안 수업비디오 학생 포트폴리오	음악맥락속에서 음악적 변화에 대한 분석적 데이터와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서술적인 구술과 인용. 음악작품에 대한 구술과 인용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음악수업에서 어떠한 학습문화가 생성되었는가?	참여관찰 수업비디오	음악맥락속에서 수업문화생성에 따른 구술과 인용
다중지능을 적용한 음악수업을 실시한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면담 교수안 교사 저널	새로운 수업적용에 대한 교사의 면담인용

(예 2) 수업관찰 및 수업안 체크리스트

학년/반	관찰내용	관찰자 의견 및 해석
수업주제(생성적주제)		
교육과정 요소	이해: 활동:	
음악수업목표	이해: 활동:	
학습자료		
수업과정 (이해를 위한 수행)	수행소개: 수행과정: 수행결과:	
수업유형	이해/활동: 전체/개별/그룹:	
평가방법	창작품: 창작품 연주: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교사/학생, 학생/학생	
수업에 대한 평가		

김영천은(1998) 질적분석의 과정은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조용환은(1999) 대개의 연구자들은 초기에는 자료 그 자체에 범주들을 에뮿한 기준으로 코딩하고, 후기에는 연구자의 분석틀에 입각한 에뮿한 기준으로 코딩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하였다.

(1) 전사(transcription)

제 1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는 활동이다. 전사는 현장에 서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손으로 쓴 관찰내용, 녹음테이프의 내용, 현장 자료들)을 후속적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예 3)은 4학년 창작학습 참여관찰일지이다(석문주, 2002)

(예 3) 참여관찰일지 사례(창작수업)

학교에 도착하여(9시 40분) 15분 동안 그 날의 수업관찰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였다. 오늘 수업은 각 모듬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 이었다. 수업이 시작하자 어떻게 모듬을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매우 다양하였다.

모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2, 3, 4, 5명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4, 5명으로 정하고, 4, 5명 구성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다시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 애들이 알아서 4명이 앉자.

솔*: 좋아하는 친구끼리 여자 남자로 2명씩 비율을 맞추자.

*규: 친한 친구끼리하자. 남자, 여자비율이 같이 있으면 잘 싸운다.

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같이 있다면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아이를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못하는 아이는 조금만 해도 되면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 단짝 친구랑 하자 비율을 맞추지 말고 합시다.

: 남녀 비율이 안 맞아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민*: 어제 사회시간에 모듬으로 했는데 뜻이 맞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솔*: 어제 같이 했는데 **가 잘하지 않았다. 남학생이 있으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 단짝 친구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단짝 친구가 없는 친구랑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친구가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친구랑 여자 친구도 단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단짝끼리 4, 5으로 모듬을 만들어 앉았다. 총 9모듬 이었다.

• • 연구자 생각-각 팀에 창작품을 잘 만들기 위하여 어떤 친구들이 자기모듬에 구성되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하여 많은 갈등을 하고 있으며, 어떤 친구들이 자기 모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유를 각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음악수업의 경우, 남

학생이 못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후에 이 수업에 발표한 창작품의 경우 남학생들의 작품이 음악적이고 더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여학생도 후에 인정을 하였다.

선생님: 연주방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악기를 과시 하지 말아요. 트럼펫 같은 것 가지고 와서 불고 그러지 마세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몸을 이용하여도 좋아요. 친구들이 특징있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교에서 활용하는 악기만을 활용한 것은 자신이 잘 하는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 음악작품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에 흥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와 교사가 결정하였다)

선생님을 그림악보를 각 모듬 도우미에게 나누어 주고, ..(중략)... 몇 개의 악보 보면서 각 모듬별로 어떤 소리를, 어떤 악기로,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를 이야기 하였다. 각 모듬별로 연습을 한 후 모듬별 발표를 하였고, 어떤 악보를 연주하였는지 학생들에게 맞추도록 하였다.

술*: (실로폰 높은음 멜로디인 실로폰 음계 리코더로 연주하였다)

*로: 11번입니다.(베드로가 술기 모듬의 연주를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주된 순서대로 설명을 하였다. 베드로는 창작수업중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하는 것이 처음이었다.) 처음 은 낮은음으로 연주하고 두 번째 높은음 낮은음으로 연주하고--

현*: 12번이라 생각함 처음 낮은 소리로 시작했고,-----

술*: 저희는 15번을 연주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경: 여러 음을 사용하였고 15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 3, 4번째 소리가 이상합니다.

*정: 3, 4번째서 3번째는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잘 연주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번이라면 3번은 강약으로 4번은 스타카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15번 첫 번째 그림은 눈을 표현하였습니다. 실로폰으로 눈이 와서 밖에서 노는 것을 표현 하였고 2번째는 비를 표현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밖에서 놀지 못하여 슬픔을 표현하였다. 3번째는 톱니바퀴라 생각하고 톱니바퀴가 순환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리코더로 3, 4번을 표현하였습니다.

<중략>

▪▪ 계속 자기 모듬이 고른 그림악보를 연주하고, 학생들은 음악적 표현방법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음악적 소리에 익숙해 가고 있었다. 또한 어떤 모듬이 왜 잘 표현하였고, 어떤 점에서 그 표현이 잘 했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자신들 모듬의 연주에 대한 평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중략>

▪▪ 관찰 후 느낀 점은 창작 수업에서의 학생의 참여가 적극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통적 악보가 아닌 그림악보를 활용하니 학생들이 부담없이 음악적 소리를 상상하게 매우 다양한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업내용이 모든 학생에게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 잘 하는 학생, 잘 못하는 학생의 구별이 없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소리로(악기연주) 바꾸는 작업에서도 창의적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모듬과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개별창작이 아닌 모듬 창작수업은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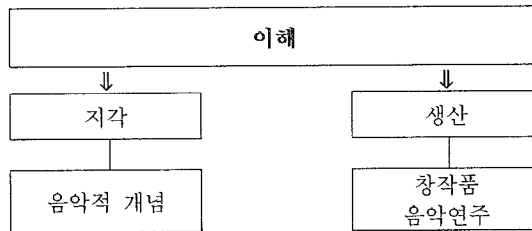
학생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도 매우 흥미로웠다.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의 리더십과 남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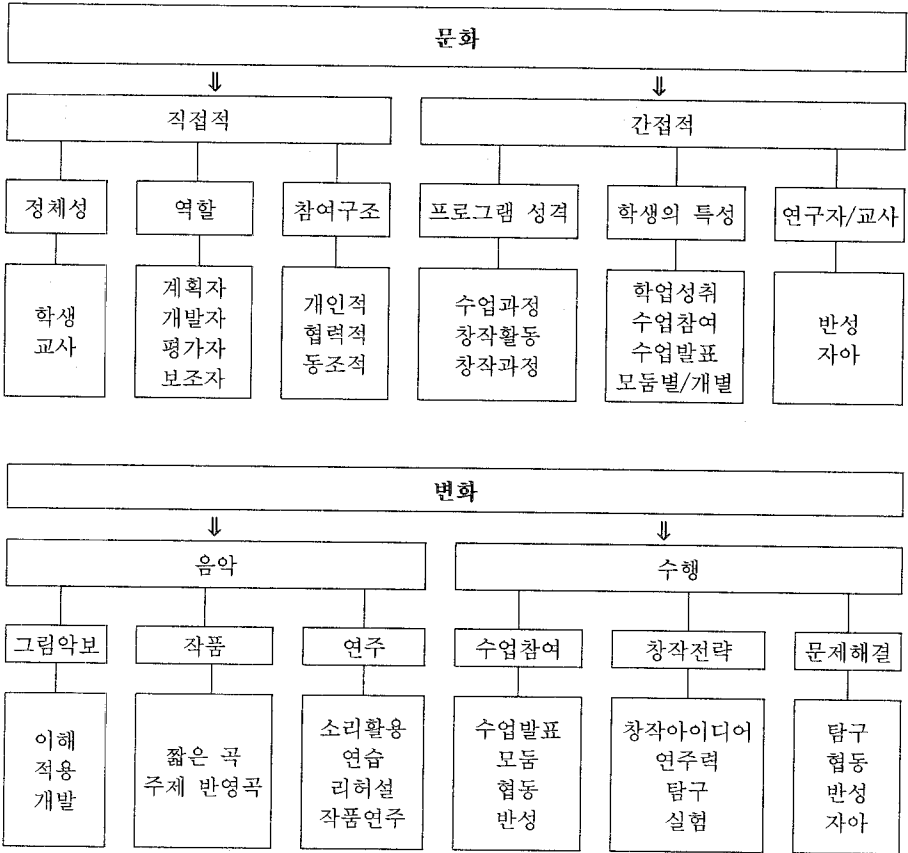
(2) 주제별 약호화(coding) 적용

상당한 양의 수집된 자료들을 읽고 평가하면서 반성적 탐구과정을 통하여 자료에 담겨있는 메시지와 의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주제별 약호화는 이 작업에 쓰이게 되는데, 연구자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면서(보면서, 들으면서) 자료의 특정부분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고 느낄 때 연구문제나 자신의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그 자료의 특정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주제로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조용환, 1999).

석문주는(2002) 연구에서 비디오수업분석일지, 참여관찰일지, 학생 포트폴리오(창작계획서, 학생 창작품, 연주평가, 자아 및 상호평가지), 교사면담을 연구주제에 맞게 사례기록으로 구분하고 구조화하였다(‘이해’, ‘변화’, ‘문화’, 예시 4 참조). 각 자료를 읽어 보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핵심어휘를 중심으로 그룹핑을 하고(‘지각’, ‘생산’, ‘연주’, ‘수행’, ‘직접적’, ‘간접적’, 예시 4 참조, 비슷한 패턴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카드에 기록한 후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모아 하나의 대표되는 말이나 문구로 만들었다(‘개념’, ‘그림악보’, ‘창작전략’, ‘정체성’, ‘역할’, 등 예 4참조). 각 데이터는 유사성, 상이성, 패턴, 주제에 의하여 분류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연구문제에서 제시하였던 이해, 변화, 문화로 큰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예 3) 주제별 약호화(이해, 변화, 문화 영역)





(3) 주제의(theme) 생성

주제 또는 의미의 생성의 작업에 들어간다. 연구자는 주제별 약호화를 통하여 원 자료들이 특정한 개념이나 범주, 분류, 또는 주제들로 특징화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연구자는 약호화 작업에서 알아낸 주제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추론하면서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하여야 한다(김영천, 1998). 이 주제는 동일한 현상들을 묶어 하나로 제시하거나, 어떤 주제가 많이 나오는 가를 분석하여 분류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주제형식은 ‘창작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시각'이라는 일반적인 형식부터 '새로운 시도에 대한 교사의 갈등'으로 '수업에서의 학습자의 역할'에서 '적극적인 학습의 주체자의 모습이 되기까지'등 현상 지향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V.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를 위한 제언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에 연구될 수 있는 질적연구 분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음악교육 현상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프로그램 개발 혹은 음악학습 계획에 대한 기존의 주류연구에서 탈피하여 학교에서의 음악적 경험, 음악현상, 음악적 삶, 의미 등에 대한 연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음악교육 영역별(활동, 이해)에 따른 음악수업 현상, 학생의 음악수업 생활,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의 실행, 실행된 음악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교사의 학생의 상호작용, 음악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의사 소통, 학생들의 음악수업 참여구조, 학교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실패자에 대한 갈등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음악의 의미, 학교에서의 음악과 실제 생활에서의 음악의 관련성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학교의 음악특별활동(합창, 합주, 밴드, 사물놀이 등)의 역할과 이에 대한 학생의 인식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연구분야이다.

둘째, 학교 밖에서의 다른 음악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음악교육, 청소년의 음악적 문화, 특수교육과 음악교육, 전문적인 음악 학교에서의 학생의 삶, 생활에서의 음악교육 역할 등에 대한 주제도 연구가 가능한 분야이다.

셋째,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사 문화, 초등학교 교사의 음악의 가르침, 학교장의 음악교육에서 인식, 학부모의 음악교육 인식 등 음악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경험, 의식, 생활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예비음악교사 자질의 패턴, 교생실습과 대학교육과정과의 관련, 교생, 교사, 대학교수의 협동과 상호작용, 음악교사의 어려움: 이론과 실천, 교사교육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과 기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의 실태, 행정가의 음악에 대한 인식, 음악교사와 행정가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나가며

본 연구는 음악교육에서 질적연구의 이해를 도모하여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질적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가 음악교육연구의 전부는 분명히 아니며, 양적연구에 비하여 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연구방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하여 어떤 연구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방법에 대한 익숙한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목적과 연구문제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의 질적연구도 유행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필요'에 의하여 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길병휘 외 (2001).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길병휘 (2001). 행위당사자 연구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길병휘 외(편),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pp. 387-412).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천 (1998).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에서의 질적연구:방법과 적용** (pp.73-106). 서울: 교육과학사.
- 석문주 (2001). 음악창작수업의 효과. 길병휘 외(편).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pp. 363-384). 서울: 교육과학사.
- 석문주 (200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음악교육연구**, 22, 29-57.
- 석문주 (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 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이수진 (2005). 초등학교 6학년 음악수업에서의 다중지능 이론 적용. 미출판 석사 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이용숙 (1998). 교육연구에서의 질적자료의 분석. 이용숙.김영천(편), **교육에서의 질적연구:방법과 적용** (pp.107-186).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 김영천 편(1998). **교육에서의 질적연구: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용숙 (2005). 연구목적에 따른 실행인류학연구설계. **한국문화인류학**, 38(1), 125-163.
- 이지애 (2005). 인천·경기지방 기간제 음악교과 전담교사 출신 교사들의 초등학교에서의 교직생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 연구**, 7(1), 175-210.
- 조용기 (2001). 질적연구의 성격. 길병휘 외(편).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pp. 11-22). 서울: 교육과학사.
- 조용환 (1999). 질적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 연구**, 2(2). 27-63.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채경순 (2003). 초등학교 5학년 음악수업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적용.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Berg, M. (1997). *Social construction of musical experiencers in two high school chamber music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
- Bernard, R. (2004). *Striking a chord: Elementary general music teachers'*

- expressions of their identities as musician-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Boardman, E., Grashel, G., & Zimmerman, M. (Eds.) (1994).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music research education conference(Special Issu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22.
- Boardman, E., & Grashel, G., & Zimmerman, M. (Eds.).(1994/1995).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music research education conference(Special Issu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Music Education*, 123.
- Boardman, E., & Grashel, G. (Eds.) (1996).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music research education conference II(Special Issue).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0.
- Boardman, E., & Grashel, G. (Eds.) (1997). Qualitative methodologies in music research education conference conferences I and II.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1.
- Bresler, L. & Stake, R. (199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 music education. In R. Colwell (Ed.),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75-90).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 Eisner, E. W. (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 (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Flinders, D & Richardson, C. (2002). Contemporary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In R. Colwell & C. Richardson(Eds.), *Handbook of research in music teaching and learning* (pp. 1159-1175).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 Fritz, B. (1999). *A qualitative Delphi analysis of the insights of music education trained school administrators on the current state of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Kantorski, V. and Stegman, S. (2006). A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 research dissertations in music education, 1998-2002.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68. 63-71.
- Kristin, V. (1991). *Perceptions of change and stability in the transmission of Irish traditional music: An examination of the music teacher's ro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 Liebhaver, B. (2003). *Mentoring in music education-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among the student teacher, cooperating teacher and college supervisor: A qualitative action research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Perconti, E. (1996). *Learning to compose and learning through composing: A study of the composing process in elementary general music*.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daho, Moscow, ID.
- Phelps, R., Sadoff, R., Warburton, E. & Ferrara, L. (2005). *A Guide to research in music education*(5th ed.). Lanham, MD: Scarecrow Press
- Ruthmann, S. (2006). *Negotiating learning and teaching in a music technology lab: Curricula, pedagogical, and ecological issu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akland University, Rochester, MI.
- Shuck, C. (2005). *Music intergration: Educator's perceptions of implementation and student achievement in public school elementary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FL.
- Stake, R., Bresler, L., & Maback, L. (1991). *Custom and cherishing: The arts in elementary schools*. Urbana, IL: National Arts Education Research Center.
- Verblen, K. (1991). *Perceptions of change and stability in the transmission of Irish traditional music: An examination of the music teacher's role*.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 Yarbough, C. (198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53-1983.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 213-222.
- Yarbough, C. (1996). The future of scholarly inquiry in music education: 1996 senior researcher award acceptance addres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 190-203.

ABSTRACT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Seog, Moo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verview the characteristics, the methodologies-case study, participant observation, interview, and ethnography-, and the process of analyzing data for qualitative research and illustrate some research examples in music education. Finally, a prospect for the future development and a desirable direc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n Korea are represented.

Key Words: music education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